

민주 당권주자 설문

단일지도체제

손학규
정세균

집단지도체제

박주선
정동영

당원 뜻대로

김효석
천정배

민주당 전당대회(10월3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박주선, 김효석, 천정배 의원 등 6명의 당권 주자가 치열한 물 밑 경쟁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각 당권주자 진영의 이견 등으로 당 대표 경선 방법과 지도체제 문제, 지도부 임기, 당권과 대권의 분리 등 '전당대회 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당권 구도는 아직 안개속이다. 특히, '전당대회 물'을 둘러싸고 각 당권 주자 진영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차기 정권 창출의 발판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분열의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6명의 당권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당대회 물'에 대한 입장과 당권 도전의 변을 들어봤다.

/임동욱·박지경기자 tuim@kwangju.co.kr

- 〈설문 내용〉
- ① 어떠한 지도체제 도입을 원하는가.
 - ② 바람직한 당 대표 경선 방법은.
 - ③ 당권과 대권 분리에 대한 입장은.
 - ④ 새로운 지도부 임기에 대한 입장은.
 - ⑤ 당 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민주당 '전당대회 물'에 대한 당권주자 입장 (성명 가나다순)

	김효석	박주선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지도체제	당원의사 따르겠다	집단지도체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단일성집단지도체제	당원 다수 원하는 체제
경선방법	국민참여+전 당원참여	대의원 50%+전 당원여론조사 50%	국민, 당원 뜻 모두 반영	전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	국민 직선제(원전 개헌형 전당원 투표)
당권·대권분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도부임기	2011년까지	2012년 전대까지	2012 총선 이후 사퇴	정해지는 대로	2년 임기 우선	2011년까지

※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대표·최고위원 분리 경선), 집단지도체제(대표·최고위원 일괄경선)

■ 김효석 의원

“계파정치 타파할 것”



① 당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민주적인 절차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찬성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가려면 국

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당원대회, 대의원대회를 뛰어 넘는 국민축제가 되어야 한다.

③ 당권과 대권은 분리돼야 한다. 대권주자가 대표가 되면 계파와 자기만의 무대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비주류에서 당을 흔들어 댈 수밖에 없는 갈등구조로는 대권주자도 죽고 당도 죽을 것이다. 대권주자는 당권을 탐내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④ 2011년까지의 임기가 적당하다. 계파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공천권'이다. 차기 당 대표의 임기를 단축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전당대회는 민주당과 지향점이 같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전당대회가 되어야한다. 통합된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대선을 치루기 위해 이번 선출된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⑤ 계파정치로 인한 당내 분열을 소통과 통합으로 바꾸겠다. 무능한 민주당 이미지를 깨고 국민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유능한 민주당,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계파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소신, 뉴민주당 플랜을 만들어 낸 정책능력으로 민주당을 2012년 대선승리의 초석이 되는 수권정당을 만들겠다.

■ 박주선 의원

“강력한 수권정당으로”



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여야 한다. 2012년 총선승리와 집권을 위해 다양한 당내 인사들이 국민에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는 소통이 불가능한 '굳은 시스템'으로 당 대표 1인의 독주를 제어할 수 없다.

② 대의원 투표 50%, 전 당원 여론조사 5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당 대표 경선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전 당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수의 대의원 투표에 있어서는 인물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1인 2표제가 되어야 한다.

③ 당권-대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지 않으면 당권을 잡은 대표가 대권을 잡기 위해 당을 사당화할 확률이 높다.

④ 현재 당헌당규에 따르면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지도부는 2012년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대선 1년 이전에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⑤ 강한 야당만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지도력으로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배짱을 가지고 강하게 투쟁하고, 실천하는 리더, 민주당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강력한 수권정당으로 새롭게 도약시키겠다.

■ 손학규 전 대표

“민주진보세력 대통령”



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당을 혁신하고 민주진보세력 대통합으로 민주당 재집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하다.

② 국민과 당원 뜻이 두루 반영되었으면 한다. 현행 선출방식은 대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국민들의 민심과 당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선출방식이 필요하다.

③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미 당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당내의 당권과 대권 분리론은 왜곡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차기 총선을 누구의 책임 하에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이다.

④ 새 지도부의 목표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재집권을 준비하는 것이다. 당연히 차기 지도부 책임 하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지도부는 총선을 치른 후 사퇴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 임기는 2년이다. 왜 이런 논란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⑤ 2012년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손학규를 버치려 한다. 잃어버린 500만 표를 되찾아오겠다. 지금 민주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것인가, 만약 야당에 머물 것인가?"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민주당을 집권의지를 갖춘 국민정당으로 혁신하고, 민주진보세력 대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손학규가 대통령 정권교체의 다리를 놓겠다.

■ 정동영 의원

“담대한 진보·연합정치”



① 개인적인 유불리 등 이해관계를 넘어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민주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원의 54.7%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종 있는 분들이 2선에 머무르기보다는 당의 역량을 전진 배치하는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런데 당원들에게 투표권도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당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전 당원투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③ 당연히 분리돼야 한다. 하지만, 당권과 대권의 분리 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④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다. 어떤 제도나보다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해지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⑤ 국민과 당원의 뜻은 명확하다. 강한 민주당으로 환골탈태하여 2012년 정권을 교체하라는 것이다. 담대한 진보와 연합정치를 통해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의 길로 매진한다면 민주당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고,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고, 잃어버린 국민의 희망을 되찾을 것이다. 그 길에서의 맡겨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정세균 전 대표

“민주당 변화 적임자”



① 당의 안정적인 운영, 당의 단결과 화합,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 체제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고, 최고위원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했다. 집단지도체제로는 제2의 안희정·이광재·송영길 같은 차세대 리더를 배출할 수 없다.

② 대의원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의 대권은 대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의 대표는 당원들의 대표이며,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충실한 인물이어야 한다. 대의원은 당원의 대표다. 따라서 당의 최고기구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당권과 대권 분리에 찬성한다. 가장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당대표의 기득권은 버려야한다. 당 대표직을 유지한 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면 공명한 경선이 어렵다. 인재의 영입도 불가능해진다.

④ 우선적으로 '2년 임기' 당헌당규가 존중돼야 한다. 다만, 임기 중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2012년 총선 및 대선승리를 위한 큰 변화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지난 2년은 기초체력을 회복하는 시기였다. 이제 거대한 보수 세력에 맞서 이기기 위해 큰 변화가 필요하다.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2012년 승리를 위해 대선후보를 육성·영입하고, 미래를 위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며, 개혁진보세력의 통 큰 연대를 추진하겠다.

■ 천정배 의원

“변화와 쇄신 해낼 것”



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단일성 지도체제가 좋다고 보지만, 집단지도체

제도 무방하다. 당원 다수가 원하는 체제로 하면 된다.

② 전면적인 당 대표 국민직선제(완전개방형 전 당원투표제)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 참여하고 싶은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모두 투표권을 줘야 한다.

③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전에 당직을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대선에 앞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 당 대표는 대선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 대선 투표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④ 당권 대권 분리 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지도부의 임기를 원포인트로 짧게 가져갈 수도 있다.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위해 큰 선거 전에 전당대회가 있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정기 전당대회의 시기를 정해 놓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⑤ 지금의 목표는 2012년 정권탈환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획기적인 변화와 쇄신, 진보개혁진영 정당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하는 데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2012년 정권을 탈환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발크림 출시!!
악극판매용

튼살!! 굳은살!! 각질제거!!
무릎, 팔꿈치, 복숭아뼈,
발뒤꿈치 케어크림

거칠고 자주 트는 발을 매끈하게

소비가가 ₩10,000

정품있으신 분, 취급하실 분 무자본(판매케이스와 발크림드림니다)

유사업종가게하신분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업종 하신분 환영!
절찬리 판매중!!!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비의 약초
래번! 한방에 3일
10일 다이어트 3kg~5kg
아랫배 썩~ 굵어집니다!
효과있을시 100%환불
1개월분 5만원
(택배무료배송)

영입달러모집 1시간 투자
월200만가능, 투잡,겸업가능

**취급점,
대리점 및 창업자
모집중!**

네이버카페 또는
다음카페에서
"유한바이오텍"
검색하시면요!

~평복을 추구하는 기업~
062) 954-5046
株式會社 010-4624-5046
유한바이오텍 010-8364-1496

www.ctcd.co.kr

까띠끌레 피부개선 기능성화장품

지역대리점 및 사원모집

- 소자본투자
- 안정된 수익률
- 미용관련종사자 우대

열정 가득한 분을 모십니다!!

지역대리점은 (목포, 여수, 순천, 익산, 전주, 남원 등입니다.)

까띠끌레는!

- * 전국 1,800여개 피부과에 입점중인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중금속 시험을 통과한 화장품 브랜드
- * 국내 최초 더미프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브랜드
- * 2010년 프레타포르테부산 공식 지정 화장품으로 선정된 명품브랜드 화장품
- * 태국 Watsons 매장 입점중인 화장품 브랜드
- * 세계 다수 국가로 수출중인 화장품
-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등 다수)
- * 국내 유명 헤어샵에 입점중인 화장품

방문량에 및 관리사원 모집 : 자유로운 출퇴근, 안정된 고수익률, 투잡가능

Caticlair
까띠끌레 호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1 201호
☎ 0621362-1117 / 010-3608-6394

GOLFZON
New Experience

광주최고 시설 스크린 골프장
각종 이벤트 연중 진행 중!

자이언트 골프존
좌타석완비 ☎ 521-0071 하이테크골프장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된 초대형홀 / 최타석 완비
호텔급 시설과 서비스 / Taylor Made클럽완비 / 500여대의 넉넉한 주차공간

제1회 자이언트 동호인 오픈 스크린 골프대회
자이언트 골프존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오픈기념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 대회명 : 자이언트 동호인 오픈(대회번호 #184)
- 기 간 : 8.17(화) ~ 9.27(월)
- 코 스 : 스카이72 하늘오션(하늘 Out/in)
- 컨시드 : 1.0m
- 바 람 : 보통
- 참가조건 : 골프존 ID로 로그인 하시는 모든 고객님

- 시상내역(3회 이상 플레이시 적용)
 - Stroke play 1등~5등 시상, 총 상품 300만원 상당
- 행운상 : 50위 이내 등재된 플레이어 중 30명 추첨하여 경품제공
- 참가왕상 : 최다 참가자 시상
- 용기상 : 골든루터 뒤에서 5등까지 3명 추첨 시상
- 출석상 : 10회 이상 라운드 하시는 모든분들에게 골프양말 제공
- 휴인원/알바트로스를 하신 고객중 3부 추첨하여 보스뱅크, 골프모자, 나무티, 아이언캐버를 모두 드립니다.
- ※ 참가만하셔도 골프존에서 제공하는 총 4억원의 경품이벤트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골프존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846-3구 코리아하우스 지리)

☎(062) 521-0071

자세한 내용은 골프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ggolfzon.com